

광주U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 청신호

정부, 北 인천아시안게임 참가 신청시 허용 방침

U대회조직위, 내달 UN·FISU와 실무협의

정부가 북한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를 신청할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참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 U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정부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대회 조직위원회에 참가 의사를 통보해오면 국제관례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에 따라 참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현재까지 북한이 대회 조직위에

참가 여부를 공식 통보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축구선수들이 올해 참가하는 국제경기를 소개하면서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벌어지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축구경기에 남녀 축구팀들이 다 참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은 다른 종목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를 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참가인원 신청 마감일인 오는 6월 20일까지 선수단 규모를 정해 조직

위에 통보하면 되는 데, 북한이 축구 남녀 대표팀 참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도 허용하겠다는 말로 화답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와 관련, 북한의 참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광주 U대회의 남북 단일팀 구성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남북단일팀 구성을 공식 승인받은 광주 U대회측은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열린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에 북한 청년 4명을 초청하는 등 그동안 남북단일팀 구성에 정성을 쏟아왔다.

광주 U대회 조직위는 이르면 다음달 말 UN, FISU 등과 모여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는 YLP에

북한 청소년의 참여를 다시 한번 유도할 방침이다.

U대회측은 특히 북한 관련 민간단체 등을 통해 광주 U대회의 남북단일팀 의사를 북한에 꾸준히 전달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투트랙 전략을 강화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 U대회 관계자는 “남북관계는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올해에도 북한 청소년의 YLP참여와 2015년 광주 U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UN는 물론 FISU와도 건설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올해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팀이 참가한다면 광주 U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캐나다로 이민 간 친구가 영하 50도 혹한의 재난을 경험하고 보낸 편지를 받고, 국가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광주일보 독자와 함께 내 친구의 편지를 공유하고 싶다.

“장장 1주일간 미증유의 재난을 겪고 있었다. 커튼을 올리면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에 장식된 아름다운 불빛처럼 수정같은 겨울꽃이 헤아릴 수 없이 매달려 있네. 한겨울 나이가가라폭포에 갔을 때 탄성을 질러했던 투명하고 아름다운 수정 꽃과 흡사한 모습인데.

한바람에 날리는 나이가가라폭포의 물안개가 가로수에 뿌리면서 가로수 가지에 엉겨 붙은 포말들이 마치 영롱한 수정처럼 아름답게 가로수에 매달려 겨울꽃으로 장식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는데.

세상사 모두가 양면동전이라더니 유리창 앞에 올라 온 앙상한 단풍나무 가지마다 수없이 매달린 눈꽃들이, 지금

않는 곳으로 옮겨다녀도 전원 평정을 잃지 않는 모습인데.

당국은 제일 먼저 병원, 지하철, 노인들 복지시설 등 중요한 지역을 순차적으로 복구해 나가고 있네. 호텔에서는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수용하는데 요금은 절반으로, 개는 20kg 미만은 허용해 준걸세.

질서 있게 순서대로 집행되고, 있는 자의 선점이나 그 어떤 우선권 권력의 힘도 전원 미칠 수 없는 곳이 캐나다의 질서일세. ‘빽’이나 황금의 위력으로 남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네.

그것은 어떤 제도나 법칙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것이 생활 속에 깊게 스며있는 정신문화라고 생각되네.

이번에 혹독한 얼음비로 겪은 재앙을 통해 새삼스러이 캐나다의 건강한 시민정신을 더 한번 인식하게 되었는데.

외관상 어수룩하고 느리고 촌스럽고

국가·공공기관을 믿고 산다는 것은

토론토지역 30만 가구가 단전이 되면서 온 거리의 신호등, 가로등 그리고 모든 도로를 아이스링크로 만들어버린 주범이 되어버렸네.

영롱한 겨울꽃을 만들어 냈던 그 얼음비가 500~600만 토론토지역 주민들에게 미증유의 재앙을 몰고 온 걸세. 우리 지역만 하여도 장장 56시간 ‘freezing rain and icing rain’(얼음비)으로 3일 동안 문밖 출입을 못할 정도로 얼음관이 되어버렸네. 오는 전화마다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란 당부 전 화내. 시민들이 정부나 당국에 한마디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네. 언제까지 우리집 우리 구역의 복구가 되느냐며 문의하고 재촉하는 시민들을 볼 수가 없네.

모든 정보는 뉴스를 보면서 잘하고 있겠지-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안전감을 느껴진다네. 나 보다 3살 연상인 정 대령(해사 출신)은 하루를 견디더니 도저히 힘들다며 우리 집으로 보따리 챙겨 피난 왔네.

한 순간 이 혹한에 30만이 넘는 customers에 정전이 되어버렸으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한때 시민들은 가게 문을 닫고 이리저리 단전되지

무엇인가 할랑하게 보이는 것이 캐나다의 특징처럼 보이네. 한때 이 사람들 법의 집행이 엄정하고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있네.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편의를 봐 줄 수 있는데도 ‘regulation(규정)’이라고 해버리면 절대 그 규정대로 지켜야만 하네.

어느 규정이란 어느 누구도 캐트릴 수 없는 것이 캐나다인들의 정신문화고, 생활 질서이네. 살아갈수록 쉬운 건 법 규정대로 따르고 행하면 그만일세. 캐나다는 살면 살수록 좋아진다. 처음 왔을 때 들었던 이 말을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스승이 간다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우리가 만든 법규를 그대로 지키며 공평하게 살아가는 자각을 한다.

“빽”을 동원하지 말고,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공공기관의 사무원에게 급료를 주지 말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도 실천하면 넉넉히 그러한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 건강한 시민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

<소설가>



국민만찬 참석하는 박 대통령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만찬에서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DMZ 언젠간 없어질 것”

朴대통령 스위스 일정 마무리 다보스로 이동... 세일즈 외교

스위스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비무장지대(DMZ)가 비록 지금은 중무장 지대이지만 앞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내 호텔에서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 내외와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부르크할터 대통령으로부터 “DMZ가 언젠개 없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을 발전시켜 북한 측에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피랍 코트라 무역관장 안전 확인

정총리 “무사귀환 최선 다해야”

리비아에서 무장괴한에 의해 납치된 한 석우 코트라 트리폴리 무역관장의 안전이 확인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피랍자 신변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랍된지 만 이들이 된 이번 납치 사건의 배경과 관련,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정치적 목적의 테러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무역관장의 안전을 확인한 경위나 현재 소재, 납치세력과의 접촉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한 무역관장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와 납치세력간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피랍사건과 관련 관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우선적으로 소재 파악과 함께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특히 “외교당국은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해 관련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함으로써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관장은 19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20일 오전 0시30분)께 퇴근하던 중 트리폴리 시내에서 개인화기 등으로 무장한 괴한 4명에 의해 납치됐다.

호남미래포럼 오늘 신년간담회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이하 호남미래포럼)은 22일 오후 6시 서울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신년 호남발전간담회’를 개최한다. 호남미래포럼 김성호 상임운영위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발전과 대한민국이 바로가기 위해 호남의 사회지도층인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 가, 반성해 보고 고민하는 그리고 공분을 느끼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수삼 성공관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간담회에서는 박승주 광주발전연구원장이 “광주·전남 지역경제 현황과 발전과제”, 박만홍 한국정치이카데미 원장이 ‘지역인사 차별과 대응’, 감응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이 ‘호남미래포럼의 비전’을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한다.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0수억 최고위차,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부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룠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전문 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에술대 2분 코너앞

룸 13개(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 가능 최고위차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원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대로면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매월동 저수지에서 대동고-건강랜드 방향 2차선 도로 자연 녹지 5484㎡(1661) 교환-분할 매매가능 평당 200만원
- 급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면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쌍촌동 2중 주거지 674㎡(204) 다가구, 다세대 적합 매입가에 매도 3억1500만원 투자에도 적합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급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신축 쓰리룸 건물 북구 우산동 대지 516㎡ 12세대 8억9천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충6억2천 매도 8억3천
- 사할적합 건물 함평군 월아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기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왕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1억5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다양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오피스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시관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급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필,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